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

주거재생과장	국승열	2133-7155
재생정책팀장	김창규	2133-7164
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	조석진	2133-1585
담 당 자	김선규	2133-7179
담 당 자	박범진	2133-7165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7매

###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희망지 공모

Seoul calling out for districts wishing for urban regeneration revival sectors
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지정 이전 도시재생 생태계 기반 조성, 주민역량 강화 목적
- 10인 이상 지역주민모임+지원단체 공모신청서 작성해 자치구 제출(4.20~22)
- 5월 말 최종 선정... 6월~12월 1개소 당 8천만 원~1억 2천만 원 지원 혜택
- 주민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높고 추진의지 강한 지역 우선 선정 예정

- 서울시가 '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' 2단계 지정과 관련해 지난 1월~3월 27회에 걸친 사전설명회를 마치고 20개 지역 희망지 선정에 들어간다.
- 희망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앞서 도시재생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약 6개월간의 사전 준비단계에 해당한다.
- 대상은 지속적인 인구감소, 고령화 등으로 쇠퇴했지만 문화·복지,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, 또는 근린지역의 경제

활성화, 주거환경의 질 향상,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기반 조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이다.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재생 희망지는 근린재생형(일반형)이다.

- 희망지로 선정되면 '16년 하반기(6월~12월)에 1개소 당 8천만 원~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혜택을 받는다. 이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,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의제 발굴·시행, 주민공모를 통한 소규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- 시는 20개 희망지 중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주민역량이 우수한 곳을 선정, 내년 2월 '도시재생 활성화구역'으로 지정하고 지역 당 100억 원을 지원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- 20개 지역은 ▲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(15개 지역) ▲주거환경 관리사업 희망지(5개 지역) 등으로 구분된다.
  -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: 규모 10m<sup>2</sup> 이상(1~3개 행정동 범위)
  -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: 규모 10m<sup>2</sup> 미만(1개 행정동 범위)



- 공모 신청은 4. 20(수)~22(금) 주민모임(주민 10인 이상 참여)과 지원단체(공동체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, 법인, 엔지니어링, 건축사사무소 등)가 함께 공모제안서 작성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.
- 공모 제안서에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진단을 통해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, 이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, 시행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와 구상이 제시되어야 한다.
  - 구체적인 항목은 ①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·무형 자산에 기초한 물리적, 사회적 실행방안 ② 지역의 물리, 사회, 경제 환경 등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의제발굴 및 실행 ③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활성화 방안 ④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, 쓰레기, 집수리 안전 등 물리적 개선 및 실행방안 등이다.
-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공모제안서를 제출하면 자치구는 공모제안서를 토대로 주민모임과 협의조정을 통해 희망지 사업신청서를 작성, 서울에 함께 제출(5. 16~17)하게 된다. 서울시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5월말 희망지를 최종 확정한다.
- 응모사업 평가는 ▲주민제안의 적정성 ▲추진역량 및 추진의지 ▲지역활성화 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추진의지 등에 우

선 중점을 둘 예정이다.

-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의 개념 및 희망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27회에 걸쳐 1,110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. 또 32회의 컨설팅도 시행한 바 있다.
  - \* 공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'16.3.17일 「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 사업 공모 공고」(2016-565호),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참조
- 시는 추후 희망지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-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“이번 희망지 사업 시행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향후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의 밑거름이 될 것”이라면서 “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- ※ 붙임 : 1.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공모계획 주요내용  
2. 2016 희망지사업 주민공모 포스터 및 리플렛 각 1부.

**붙임 1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공모계획 주요내용**

**1 공모개요**

공모 대상지

- 지속적인 인구감소,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, 문화, 복지여건,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
- 근린지역의 경제 활성화, 주거환경의 질 향상,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기반조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

선정계획

- 선정계획 : 최대 20곳
  -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 15곳 : 10만㎡ 이상(1~3개 행정동 범위)
  -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 5곳 : 10만㎡ 미만(1개 행정동 범위)
- ⇒ 선정된 희망지는 “주민역량강화사업” 시행(사업당 0.8~1.2억원 범위내)

희망지사업 추진일정

**2 공모계획**

대 상 지

- 지속적인 인구감소,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, 문화, 복지여건,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
- 근린지역의 경제 활성화, 주거환경의 질 향상, 주민공동체 활성화



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

**<대상지 조건>**

- 도시재생활성화사업 : 도시재생활성화 법적요건 2개이상 충족지역
  - ①인구 현저히 감소지역, ②총 사업체 수 감소 등 산업 이탈발생지역
  - ③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지역
- 주거환경관리사업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령 별표1 충족지역
  - 전용주거, 제1,2종일반주거지역중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지역
  - 단독주택재건축,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희망지역
  - 재개발·재건축 해제지역,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

응모자격 및 방법

- 응모자격 : 10인 이상 주민모임 + 지원단체
- 응모방법 : 지역주민 모임 등이 자치구에 희망지사업 공모신청서 제출
- 제안내용
  -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인식 및 진단을 통한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 모색
  - 지역 활성화 계기마련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등 주민역량강화방안
- 희망지 사업 신청 (구 → 시)
  - 자치구에서는 주민모임 등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, 주민모임과

협의조정을 통해 추가 작성한 희망지사업 신청서(자치구)를 서울시에 제출

**평가계획**

- **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** (학계 등 외부전문가 10명 내외 구성)
- **평가 방법 : 서면평가** (※ 필요시 현장평가 병행)
- **평가항목 및 배점**
  - 주민제안의 적정성, 주민역량 및 추진의지, 도시재생활성화 필요성 및 가능성 등